

제 6 호

주의 공현 축일

(연중 제 1 주일)

1973. 1. 7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신년사】 ※ 평화의 날 메시지(발췌) ※

평화는 가능하다

교황바로로 6세



나의 메시지는 격언과도 같이 간단합니다. 「평화는 가능하다」 이 외침에 「우리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합창같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평화란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라고 공격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평화는 이미 이룩되었다고 합니다.

무기는 이미 완패된 광인의 악기인양 무기고에서 조용히 녹출고 있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진지한 국제 기구들은 모든 이에게 안전과 자립을 보장해 주고, 평화는 이제 하나의 문명이 되었으니 평화를 문제삼아 그 평화를 교란 시키지 말라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폭력이 다시 유행하며 가위 정의의 기치를 쳐들기 까지 합니다. 폭력은 이제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변하여 온갖 배신의 악을 저지르며 비굴과 강탈과 공포의 간계를 동반하고, 마침내 묵시록의 망명과도 같이 살인적 파괴력을 지닌 전대미문의 무기로 무장된 정체를 나타냅니다. 가정, 사회, 혈족, 민족, 인종 안에서는 집 단적 이기심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보편적 최고 문명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들 사이의 완전하고 항구한 질서의 교요함, 즉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평화는 하나의 꿈일 수 있고, 이상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헛된 꿈이 아니며, 이 이상은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기에 공상은 아닙니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는 마땅히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번의 세계전쟁을 겪은 전장으로 부터 들려오는 메시지가이며/이 땅을 피로 물들인 최근의 무력 충돌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군인 묘지의 무수한 무명과 무명병사들에게 바쳐진 기념비들의 수줍은 신음소리이기도 합니다. 진정 원하기만 한다면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가 가능하면, 평화는 의무입니다. 평화 진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수적 힘의 용기가 아니라 사랑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새로운 정의의 구현없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선의 작용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며, 그것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신 산상수훈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의 존엄성을 추호도 손상시키는 일없이, 보다 빨리, 보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거절하지 맙시다. 평화는 정녕 가능합니다.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보라, 입금이신 주께서 오시니, 나라와 권세와 주권이 그 수중에 있도다.

□ **제1독서** (이사이사서 60장)
하느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났다.

□ **창계송**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느님, 만 백성이 당신께 조배 드리리이다.

□ **제2독서** (에페소3: 2-3, 5-6, 성서p.440)
이방인들도 약속된 바를 함께 받는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동에서 그의 별을 보고 주를 조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2: 1-12, 성서p.2)
동쪽 나라에서 임금님을 조배하러 왔노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수치와 비애를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우리의 의지에 당신의 능력을 비추어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가능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

3.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능하신 천주여, 우리가 지향하는 장래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

4.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현재의 안목 저 건너편 하늘 나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

5. 주여, 맑은 정신과 도량 넓은 마음으로 현재와 내세를 비교하여 기필코 승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

□ 주의 공현 감사송

□ **영성체송** 동쪽에서 주의 별을 보았기에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예배 드리러왔나이다.

※ 이 주간의 성경 ※

8(월)독서(히브리1: 1-6, 성서p. 496)
복음(마르코1: 14-20, 성서p. 76)

9(화)독서(히브리2: 5-12, 성서p. 497)
복음(마르코1: 21-28, 성서p. 76)

10(수)독서(히브리2: 14-18, 성서p. 498)
복음(마르코1: 29-39, 성서p. 76)

11(목)독서(히브리3: 7-14, 성서p. 499)
복음(마르코1: 40-45, 성서p. 77)

12(금)독서(히브리4: 1-5.11, 성서p. 500)
복음(마르코2: 1-12, 성서p. 78)

13(토)독서(히브리4: 12-16, 성서p. 501)
복음(마르코2: 13-17, 성서p. 78)



□ 교리교실 □

성모 마리아

박진량 신부

하느님은 처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으므로 그녀 안에서 실로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녀 안에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새 시대가 시작했다. 그녀야말로 여인중에 가장 복된 분이였다. 수세기의 명화들이 즐겨 그녀를 화폭에 담았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선율에 실었다. 얼마나 많은 조각품들이 그녀를 소재로 삼고 있을까! 이 여자를 왜 그렇게 복되다고 칭송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당신을 낳아서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루가11/27)하는 식으로 예수님과 그의 혈육관계를 따져서 성모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겉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둘러 있는 군중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하고 말씀하셨다. (마태12/48-50)

이 말씀은 얼핏 잘못 알아 들으면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너무 경솔히 대우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갈라진 형제」들이 그런식으로 해석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복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루가복음에는 같은 뜻의 귀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루가11/28)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점은 당신 어머니가 참으로 복된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당신과의 혈육관계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성모마리아야말로 참으로 복된 근거를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의 신앙이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실 때, 그녀는 예수님을 배안에 잉태하기 전에 마음 안에 잉태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는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신다.

□ 양지쪽 □

보 석 (寶石)



사람들은 누구나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다. 어린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내지는 윤리성마저 내팽개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끼리, 정표로 주는 약혼 결혼 반지들도 보석 반지여야 하고, 또 그 때야만 그 사랑의 농도가 짙다고 해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자랑스러이 여기는 여자들을 종종 만나 볼 수가 있다. 보석이란 도대체 무엇인테?

그런데 실상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일 것이다.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하느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서 우리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존엄성을 알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보석 보다는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란 너무나도 전망증이 심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고작해서 인권옹호주관이나 성탄절 무렵쯤에만 생각해 내고 마는 점이다.

3년전 성탄절에 성당에서 신발을 잃은 적이 있었다. 아마 같은 경험을 해 본 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많은 틈을 타서 혼잡한 가운데 남의 신발을 슬쩍 한다가 나 영세체하러 나간 부인들의 핸드백을 실례하는 정도의 사례들이 왕왕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때 일수록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운다. 더욱이 초라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말이다. 주인을 알아서인지 보통으로 개들도 그렇다. 험상 궂고 초라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찾아대는 것을 보면 영특하기 이틀데 없다. 그런데 우리를 미안스럽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이때문에 종종 벌어진다. 혹시나 하고 의심했던 그 초라한 모습의 그 분이 영성체를 하고 돌아오나던지 어떤 교우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적 친교를 나눌 때이다. 이처럼 민망스럽고 죄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외적인 것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은 모두가 하느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는데 담밑에서 멀고 있는 저 험벗고 굶주린 하느님을 당신은 어떻게 대접하려 하는가?

「평화는 가능하다」고 외치는 교황님의 신년 메세지나, 1월18일부터 25일까지의 일치 주간 정신, 1월 마지막 주 일의 구라주일 정신이 「인간의 존엄성」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석보다는 더 값진, 그것을.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중	양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교리시간	예비자	일 반	일(11시) 화. 목(10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직 장	화·목(오후 8시)	화(오후 7시)					수(저녁미사후)					일(오후8시)	
	학 생	수·토(오후 7시)													
	아 동	토(오후 3시반)	토(오후 3시)	일(오후 2시반)	일(11시)	일(9시)	일(9시반)								
	학 생	일(9시)	토(오후 4시)	토(오후 4시)									일(11시)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우리의 문제]

사제 양성 후원의 일

전주 교구 평신도 단체의 연합체인 사목협의회와 교구 신부 전체회의는 1973년을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해로 결정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정의는 망각되었고, 인간의 정신적 영신적 가치관마저 마비되어가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히 요구하고, 이 일을 더 잘해 나가기 위한 성소육성의 의무는 진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사제없는 교회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점을 직시하여 이 사업에 뜻과 힘을 모으자.

1. 전주 교구의 사제 현황

현재 4개(군산 중동, 대야, 순창, 원평)본당이나 신부님이 안 계시는 곳도, 금년에 군중 신부님으로 한분이 가셔야 하고 또 은퇴를 희망하시는 할아버지 신부님도 계시다. 그런데 새로 나시는 신부님은 금년에 한분 뿐일 듯 하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학생회나 기타 특수 신심활동만을 도와주실 신부님의 필요를 느꼈고, 또 앞으로 은퇴하실 신부님도 계시는 것이다.

2. 사제 양성 후원회의 사업

- ① 사제 성소의 개발에 관한 일
- ②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기금 저축
- ③ 은퇴 신부님을 돕는 일

3. 우리의 할 일

2년 만기의 5만원짜리 적금 1구좌를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협조하는 일이다. 평소의 생활을 절약하여 매월 1,905원씩만 혼자서든지, 또는 너댓이서 모아보면 티끌이 쌓여 배산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성소 문제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방법도 있겠고,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일면도 있을 수 있겠다.

[흐뭇한 이야기들]

□ 강론을 잘 들으시다 □

아무리 훌륭하게 준비를 한 강론이라도 마이크나 스피커가, 또는 앰프가 나쁘면 별로 그 효과를 다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대개 커다란 성당을 올려 퍼져나오는 강론 소리란 그렇게 쉽게 우리의 귓전에 와 닿지는 못한다. 이의 해소를 위해 애써 주신 숨은 은인이 있다.

이동엽(베드로, 전북일보 주필) 이분이 바로 그다. 평소 언론계에서도 교회를 위해 애써 오시던 이 주필은 자기 본당인 중앙성당을 위해서 마이크와 앰프를 새로 시설해서 모든 교우들이 또렷하게 강론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중앙성당으로서는 본당 설립이래의 가장 난문제 가 해소되었다 한다.

□ 어려운 형제와 즐거움을 함께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코흘리개 본당 꼬마들을 위해서 교리를 가르쳐 오는 전주 지구 교리 교사 연합회가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서 공소의 어린이들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노송동, 덕진, 서학동 본당 소속의 공소에 노트, 연필, 책받침, 칼 등을 직접 전해 주었다.

그 외에도 여러 본당 학생회, 부녀회등에서는 별로 돌보는 이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찾아서 성탄과 연말 연시의 기쁨을 같이했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랐을때 언제 네가 나를 찾아주었느냐?」는 책망일랑 듣지 않도록 노력하여 우리 사회에 밝은 웃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한테 모우자.

□ 공소에 주보를 □

공소에서 주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웨침의 메아리가 멀리 부안까지도 울렸다. 부안 본당의 이상호 신부님께서도 관내 공소를 위해서 1구좌 신청해주셨다. 여기서 그쳐야 할까? 그 웨침이.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탕,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8(월) 교리교실(제2기-11, 12월신청자-박신부지도)
- 9(화) 성경교실(유장훈 신부 지도)
- 영어문화 교실(피스코 담당)
- 12(금) 교리교실(제1기-9, 10월신청자-문신부 지도)

근하 신년

가 틀 릭 센 터

근하 신년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릉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근하 신년

동 남 샐 프 TV 및
스토-브
전 주 대 리 점

전주극장 입구 ②5504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교구 주교좌 본당 신자의 긍지를 지킵시다. 73년도 교구의 증점 사업인 사제 양성 후원에 적극 참여합니다.
2. 교무금 현황
 - ① 목표액 2,750,000원
 - 신입액 2,825,650원 (약105%)
 - ② 종세대 797세대
 - 신입세대 678세대
 - ③ 미신입세대 (119세대)도 조속한 시일내에 교무금을 신입하여 앞서 가는 본당 운영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30,40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재속 형제 월례회 (1월7일 공식 미사 후)
 2. 학생회 월례회 (1월7일 오후3시)
 3. 애령회 간부 월례회 (1월10일 12시)
 4. 신용조합 월례회 (1월14일 공식미사 후)
 5. 방학 중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일과 평일 미사에 내보내 주시기를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6. 학생회에서는 목도리 11점과 마스크 12점을 만들어 전방에서 수고하는 해병대 군중으로 계산 서용복 신부님께 전달하였습니다.
- 서 신부님으로부터 감사 편지 있었습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9,912원)
- 구유 봉헌금 (8,70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사도회 확대회의 (1월7일 공식미사 후)
 - ① 참가자 : 사도회 임원, 구역 회장단
 - ② 안건 : ㄱ. 교무금(전년도 미수금 및 금년도 분)
 - ㄴ. 공소 경작 수입금 보고
 - ㄷ. 국군 장병 위문대에 관한 것
2. 신용 조합 임원회 (1월13일)
3. 성화 카렌다 주문하신 분은 찾아가지시오(값100원)
4. 결혼을 축하합니다 (1월9일 11시반)
 - 이강재(바스칸)군과 김순옥(아가다)양
 - 지난 주일 봉헌금 (5,382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1월7일 '공식 미사 후)
2. 재속 전주 형제회 특별 피정
 - ① 때 : 1월10일 10시 (버스 대걸 관계로 시간 엄수 바람, 모임 곳은 복자성당)
 - ② 곳 : 광주 피정의 집
 - ③ 지참물 : 수도복, 기도서, 묵주, 미사 경본, 세면도구, 1월10일 점심 도시락
 - ④ 경비 (숙박비와 차비)는 형제회 총무에게 납부
 - 지난 주일 봉헌금(11,905원)
 - 지난 주간 성미(2말5되)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사도회 월례회 (1월7일 저녁 미사 후)
2. 첫 영성제한 어린이를 위한 축하 미사 (1월7일 공식 미사)
3. 어린이 주일 학교 방학 (1월7일부터)
4.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 강해문(암브로시오, 10만, 사도회 교문)씨 12월31일 선종
 - 강마리아(삼진동)여사 선종
 - 지난 주일 봉헌금(8,650원), 교무금(67,020원) 정양 사제 회사금(9,300원) 감사합니다.
 - ✳신용조합에 푼돈 넣어, 너도 나도 혜택 보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사도회 월례회 (1월7일 밤미사 후)
 2. 대진 신용조합 현황(1972. 12. 31 현재)
 - 주입부 출자금 13,421,241원 예수금 1,175,897원
 - 기 타 468,454원 이익금 504,514원
 - 계 15,570,106원
 - 지출부 대부금 14,836,476원 기타 733,630원
 - 계 15,570,106원
- ※월례회 (1월15일 밤7시, 강당에서, 가입 희망자도 참석바람)
3. 성직 유치원 1973학년도 원아모집
 - 유치원에 문의바람 (전화 28347)
 - 지난 주간 성미(1말2되, 헌금 1,350원), 지난 주일 봉헌금(27,783원), 구유봉헌금(2,295원), 감사합니다.

✳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시내 6개 본당 사도회
■ 순 정 이 편 집 실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미 주	오 전	6시반, 10시	6시반,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6시, 10시, 11시
	오 후	7시 (토요특전5시)	7시 (토요특전5시)	4시, 7시 (토요 특 전 7시)	7시	7시	7시	7시
사 일	오 전	월. 수 (6시반) 금 (10시)	금 (10)	월. 수. 금 (6시반)	월. 화. 목. 금 (6시)	월. 목 (7시)	월. 화. 목. 금 (6시)	
	오 후	화. 목 (6시)	화. 수. 목 (6시반)	화. 목 (7시)	매일 (7시)	화. 수. 금. 토 (7시)	수. 토. (7시)	